



보험사 감독체제의 전환에 관한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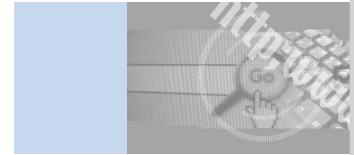
李 碩 皓 (研究委員, 3705-6391)

최근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보다 효율적인 리스크중심 방식으로 전환·발전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, 이를 위해서는 법적·제도적 장치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, 지배구조 및 경영부문 관리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.

- 최근 금감원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감독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, 선제적 감독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 중에 있음.
 - 특히 각 보험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, 내부통제기능,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(RAAS)를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임.
 - 또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(RBC)를 2007년에 도입할 계획임.
-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, 보험사의 경영 및 재무부실에 대한 종합적·차별적·사전적인 평가 및 감독이 가능해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재무제표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사후·교정적 감독방식은 각 보험사에 내재된 취약성과 미래의 손실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을 포착·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〈표〉 선진국의 리스크중심 감독제도

국가(기관)	제 도	적용 업종
미국(NAIC)	Risk-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	보험
영국(FSA)	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	보험, 은행, 증권
캐나다(OSFI)	The New Supervisory Framework	보험, 은행



- 또한 미국, 영국 및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보험사에 대한 감독방식을 기존의 재무제표에 의존한 건전성 평가방식에서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면 대체해왔음.
-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효율적인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전담조직 양성 외에도 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진단 및 위험관리를 자문할 수 있는 보험계리사의 양적·질적 확보가 중요함.
 -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보험계리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교육 및 선발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.
 - 2003년말 현재 미국의 경우 보험계리사의 수가 보험사 전체직원의 2~5%를 차지하는 반면, 우리나라는 0.5%에 불과하고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세분화와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.
-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에 대한 적극적 벤치마킹을 하되 무선별적인 답습은 지양하여야 함.
 - 특히 RBC 제도 자체의 단순 도입보다는 현재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은행권 바젤II의 보험권 적용 가능성, 또는 다른 위험예측지표(예: 미국보험감독자협회의 FAST지표)와의 결합 및 선별적 활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.
 - 아울러 국내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, 제도분석 및 시뮬레이션 과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 보험사의 지배구조, 운영리스크, 그리고 자연재해와 테러관련 리스크 등과 같이 정량적 관리로는 다루기 힘든 리스크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 - 특히 지배구조 및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외이사제도의 합리적 운영, 독립보험계리인 제도의 활성화 및 시장에 대한 공시기능 강화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임.
- 한편, 향후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다 다양한 업종간 위험이 교차·확대될 경우, 한 업종의 위험이 전체 금융그룹 또는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
 - 이를 위해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와는 구별되는 보험, 은행 및 증권부문의 감독당국간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별개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